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ISSUE PAPER vol. 40

열람서비스를 통해 본 한시기관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과 의미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 40

I S S U E P A P E R

열람서비스를 통해 본 한시기관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권미현 기록연구사 (bears77@korea.kr/ 나라기록관)

- I. 머리말
- II. 한시기관과 조사기록의 특성
- III. 한시기관 기록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점
- IV. 맺음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과 의미 -세계기록유산 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이소정 선임전문관 (sjlee@unescoicdh.org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교육홍보팀)

- I. 들어가는 글
- II.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대중적 이해의 필요성
- III. 세계기록유산 콘텐츠 개발
- IV. 맺는 글

열람서비스를 통해 본 한시기관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권미현 기록연구사(bears77@korea.kr / 나라기록관)

목 차

I. 머리말

II. 한시기관과 조사기록의 특성

III. 한시기관 기록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이관 대상 기록물, 등록, 검색

2. 기록물 보존기간 재평가와 기술

3. 기록물 공개재분류

IV. 맺음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는 기록관리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열린 논의를 위해 다양한 제언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록된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열람서비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거사 관련 한시기관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한시기관 이관 대상 기록물의 확인부터 등록, 보존기간 재평가, 기록물 기술, 공개재분류 등 기록물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기반이 되어 한시기관 기록물의 적극 공개와 제공을 통해 한시기관의 설립 목적인 진상조사, 진실규명, 피해보상을 조속히 해결하고 나아가 희생자 추도, 역사교육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I. 머리말

한시기관이란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 폐지되는 기관을 말한다.¹⁾ 한시기관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되는데 국제행사, 국제경기대회, 과거사 및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 등과 관련한 기관이 다수이다. 각 기관은 설립 목적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을 승계 기관이 없는 경우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다. 한시기관 기록물은 이관이 비정기적이긴 하나 국가기록원의 수집·관리·활용 측면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한시기관은 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별도 채용된 별정직 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시기관의 활동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파견 공무원은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고 별정직 공무원은 면직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생산기록물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렇듯 한시기관 기록물은 진상조사를 위해 유용한 방식으로 관리되다가, 이관 후에는 활동 당시 기록물의 특성이 연속성 있게 관리되지 않는다. 최근에서야 일부 한시기관에 소속기관 기록·학예·사서직 중 1인을 파견하여 기록관리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긴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는 기록정보 열람서비스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확한 기록물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양한 한시기관 중 과거사 진상조사 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은 열람 요청 빈도가 높다. 이는 한시기관 활동 중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진상조사 완료 후 관련 기관·단체에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등 현재에도 진상조사와 관련된 활동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시기관은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기관의 활동은 과거형이지만, 활동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시기관 기록물은 유사 성격으로 재발족한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개시, 각종 사건의 재심 청구, 강제동원 피해보상과 관련한 제3자 변제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이용이 활발하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공공이용(public use)의 특별한 책임성을 갖는데, 이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편익에 관한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기록원은 국민과 관련된 업무 활동의 결과인 기록물을 보존함으로써 정부 역할에 대해 설명책임(accountability)에 대비하며, 이는 모든 국민들이 기록정보서비스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²⁾ 국가기록원 소장 한시기관 기록물의 열람 수요는 대부분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개인이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와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다. 이렇듯 한시기관에서 생산·수집되는 기록물은 우리 사회의

1) 국가기록원 공공표준, <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v2.0)> (NAK 15:2021(v2.0)), p.5 참고.

2) Mary Jo Pugh 저, 설문원 역, 『기록정보서비스』, 진리탐구, 2004, pp.19~20 참고.

사회적 이슈가 가장 잘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국가폭력과 같은 과거사 및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생산·수집되는 조사기록은 재발 방지를 위한 선(先) 사례로써 이용가능하다.³⁾

한시기관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는 과거사 관련 기관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인 200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되었다. 과거사위원회별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 인력, 시스템구축, 향후 활용방안 등 기록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⁴⁾ 이후 사회적 참사 발생 이후 설립된 수사·조사기능이 있는 한시기관에 대한 연구가 있다.⁵⁾ 관련 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방법,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생산 조사기록을 ‘사안파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시기관 관련 법령과 실무와의 간극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⁶⁾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국가기록원의 정책에까지 반영되어 제도로 운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하여 한시기관의 전자기록물, 비전자기록물, 웹기록물 등을 수집하여 관리한다. 활동 중인 한시기관에 대해서는 공공표준 〈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을 통해 기록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은 대상기관이 한시기관일 뿐 일반적인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시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본 연구는 한시기관 기록물의 열람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열람 요청이 빈번한 과거사 관련 진상조사 기관인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원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를 사례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한시기관은 과거사 관련 진상조사 기관을 가리킨다.

3) 김민경, 윤은하, 오효정,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법령 및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기록관리학회지』 제19권 제4호, 한국기록관리학회, 2019, p.88 참고.

4) 조소윤, 『한시기관 이관 기록물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우지원,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배나경,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 개선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임희연,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 제17호, 한국기록학회, 2008 ; 김정희, 『과거사 규명을 위한 조사기록 관리방안 연구—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최관식, 『업무기능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6권 제2호, 한국기록관리학회, 2006

5) 강철호, 『한시 조사기관 조사기록의 관리체계 연구 : 가슴기살규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황광석, 『한시 조사기관의 기록관리 방안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6) 김민경, 윤은하, 오효정, 앞의 글, 2019

II. 한시기관과 조사기록의 특성

1. 한시기관의 특성

한시기관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공공기관이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폐지되어 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특별법 등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었다가 활동이 종료되는 위원회 등으로 나뉜다.⁷⁾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한시기관은 세 번째에 해당한다. 이러한 한시기관은 일반 공공기관과 다른 특성을 지니는데, 첫째 명확한 목적에 의해 설립되며, 조직 형태는 설치와 관련된 법에 명시된 기간 동안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시적인 성격을 가진다. 둘째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라는 조직 형태를 띠며, 위원장을 포함함 상임·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와 의결된 사항을 조사·집행하는 사무기구로 구성된다.⁸⁾ 넷째 정부조직으로 설립되어 예산, 정보공개처리 등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업무처리를 수행해야 하며 조직 구성원의 형태는 공무원과 별정직 조사관으로 구성된다.

과거사 및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 형태의 한시기관의 현황은 <표1>과 같다. 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위원회도 있고, 조사기능은 없어지고 심의·의결, 피해자 지원 등의 기능만 남아있는 위원회도 있다. 진상조사와 규명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한시기관은 업무처리 과정, 업무 활동의 결과물로 생산된 기록물의 성격이 일반 공공기관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시기관은 조사 및 수사 기능이 있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이행 권고, 명예회복과 보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생산기록물은 일반 행정업무 처리에 따른 전자기록물보다 조사결과물을 편철한 비전자기록물의 비중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의 한시기관은 정부부처 공통으로 활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 외에 별도의 진상조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는 한시기관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 지속적인 활용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은 진상조사 활동과 결과물의 핵심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관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7) 김민경, 윤은하, 오효정, 앞의 글, 2019, p. 95 참고

8) 황광석, 앞의 글, 2018, p.3 참고

〈표 1〉 과거사 및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

순번	기관명	관련법	존속 기간
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00.8.28.~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04.9.17.~
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0.10.17.~2004.12.31.
4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4.11.10.~2015.12.
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5.5.31.~2009.11.
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2005.12.1.~2010.12.
7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06.7.13.~2010.7.
8	군의원사진상규명위원회	군의원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2006.1.1.~2009.12.31.
9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0.12.~2017.6.
10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4.10.~
11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2015.8.4. ~ 2016.9.30.
12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7.7.7. ~ 2018.8.6.
13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8.9.14. ~ 2023.9.13.
1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00.8.9. ~
1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019.12.26.~
16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20.12.10. ~
17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22.1.22. ~

2. 조사기록의 특성

그간 국가가기록원의 한시기관 기록물 수집 현황은 <표 2>와 같다. 수집기록물 중 다수를 차지하는 조사기록은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과 활동의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기록물이 업무 활동의 증거이자 정보자산으로서, 형태나 구조에 관계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건이나 처리행위에 대한 공신력 있는 증거로서 간주되고, 업무 요건에 충분히 부합하도록 진본성·신뢰성·무결성·이용가능성을 지녀야 한다.⁹⁾ 각 한시기관에서는 조사기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한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기록을 편철·정리한 기록물체”로, 군의문사위원회는 “국방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망사건에 대한 재조사기록”으로, 강제동원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조사, 진상조사에 과정에서 생산·수집한 기록을 조사기록”으로 보았다. 이러한 조사기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첫째 그동안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건에 대해 문헌자료·증언자료·장소(현장) 등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진상조사 사건에 대해 문헌이나 기존 연구에서 확인이 불가능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교차연구가 가능하며, 왜곡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다. 셋째 조사기록을 통해 기존 문헌연구의 재해석과 새로운 기록이나 증언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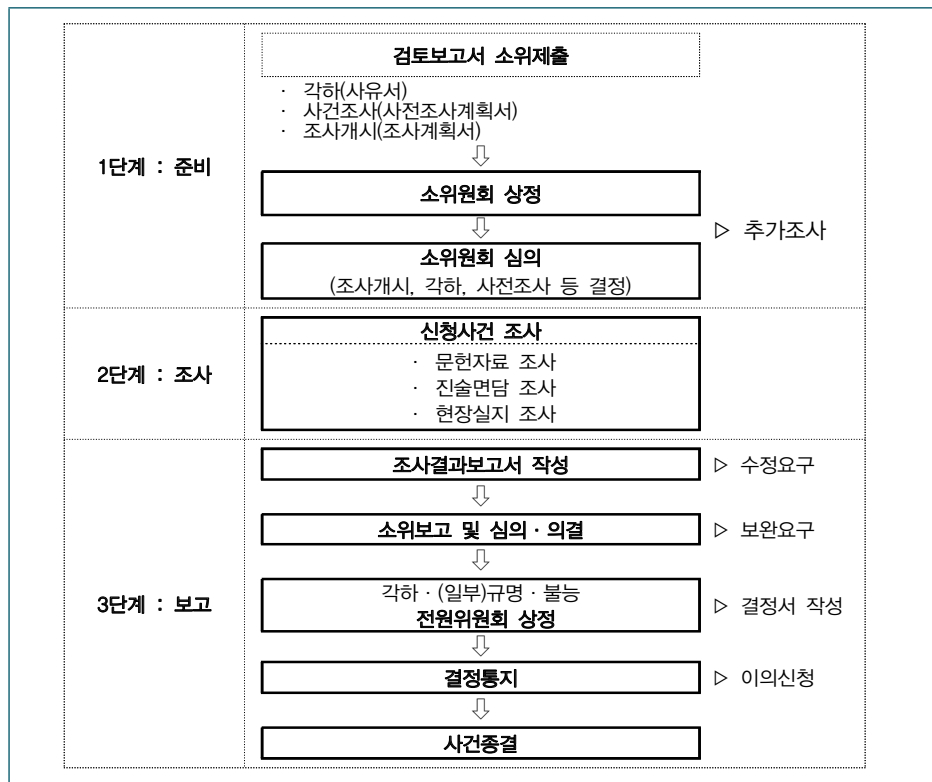
<표 2> 한시기관 기록물 수집 현황(진상조사 관련 기관 한정)

수집 연도	기관명	수집현황				
		총계	문서류 (권)	시청각 (점)	행정박물 (점)	간행물 (권)
2008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13,083	13,083			
200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943	94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15,927	5,233	521	115	10,058
2010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4,660	4,6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7,910	6,749	731	6	42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15,871	15,87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465	465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647	2,64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368	18,129	2,164	75	
2013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984	984			

9) <KS X ISO 15489-1 : 2020 문헌정보-기록관리-제1부:개념과 원칙>, 2002 ; 강철호, 앞의 글, 2021, p. 1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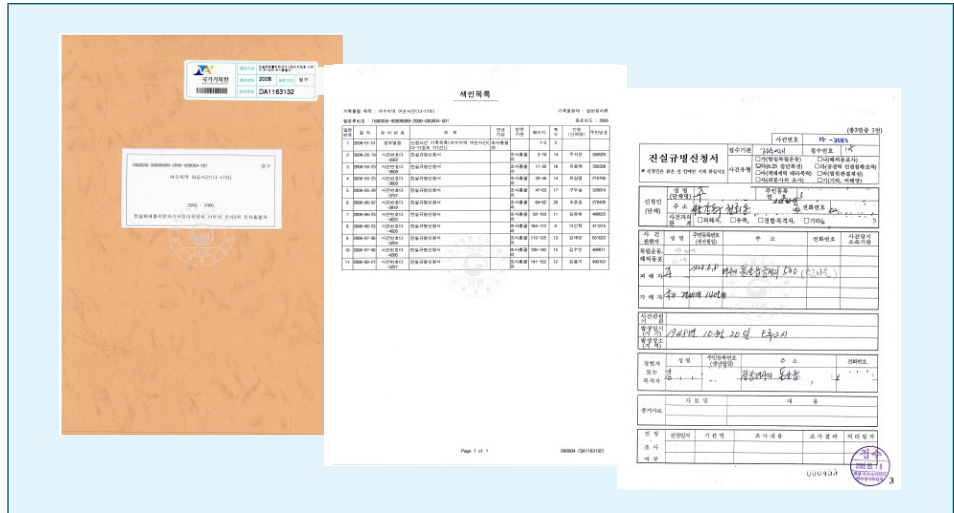
수집 연도	기관명	수집현황				
		총계	문서류 (권)	시청각 (점)	행정박물 (점)	간행물 (권)
20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2,587	1,936	446	7	198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444,885	44,182	3,533	146	24
2022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7,412	7,412			

조사기록이 생산되는 과정을 보면 기록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시기관 기록관리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업무 절차를 보면,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소위원회를 통해 조사개시, 각하, 추가 사전조사 등을 결정하게 된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문헌자료 조사, 진술면담 조사, 현장 실지 조사 등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진실규명 분야별 소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의결한다. 이후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어 각하, 진실규명, 일부규명, 불능 등으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그림 1〉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절차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사건별로 수 권에서 수십 권이다. 주로 “○○○ 민간인 희생사건 기록”처럼 사건명이 기재된 사건조사기록으로 편철된다. 사건조사기록은 진상규명신청서, 검토보고서(사건조사계획서, 조사계획서), 소위원회 심의(조사개시, 각하, 사전조사 결정), 신청사건 조사(문헌, 진술청취, 현장실지조사 기록), 조사결과보고서, 소위원회 심의의결서, 전원위원회 심의의결기록, 결정통지서, 우편배달증명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의문사위원회는 군의문사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개시 결정을 통해 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개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진술청취, 감정의뢰, 물건의 제출 등의 조사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권은 “진정 제○○○호 ○○○ 진정사건기록”이라는 제목으로 편철되는데, 군의문사 진상규명 진정서, 진정인 조사 결과, 진술조서, 자료제출 협조, 부검자료, 현장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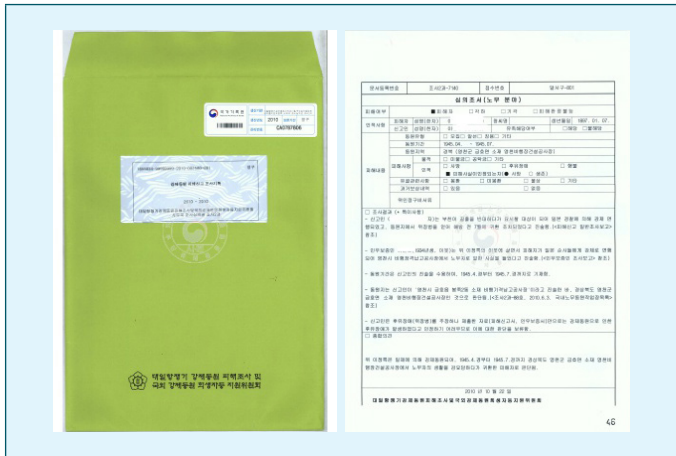


〈그림 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생산기록물(사건조사기록)

강제동원위원회의 활동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이다. 강제동원 피해사실 신청에 따른 조사, 피해자를 인정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그 결과물로 생산되는 것이 ‘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철’이다. 조사기록은 피해신고서, 증빙서류(신분관계, 강제동원 관계), 참고자료, 위인정 자료¹⁰⁾, 전화(기초)조사보고서, 생존자 진술청취보고서, 일반조사보고서, 인우보증인 조사보고서, 사실확인 첨부서류, 사실확인결과서, 의견서 표지, 의견서, 피해신고 보완조사보고, 심의조서, 심의조서

10) 위인정이란 강제동원위원회 활동 당시 강제동원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명부, 사진 등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식적인 자료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정정, 심의결정통지서, 호적정정신청서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기록 목차에 구성자료의 유무를 체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3〉 강제동원위원회 피해신고 조사철

이처럼 한시기관의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상 기관의 진상조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진상조사 절차와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형에 대해 파악하고 활용 가능한 방향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III. 한시기관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점

열람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소장기록물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 소장 한시기관 기록물의 열람 요구는 대부분 개인의 피해보상, 권리구제, 억울함 해소 등 간접함과 직결되어 자료 제공을 독촉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장기록물을 적시적소(適時適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열람요청자의 정확한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정확한 검색 결과가 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록물을 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공개 여부는 주요한 문제이다. 이 장에서는 한시기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이관 대상 기록물, 등록, 검색

한시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이관하기 전 보존기간 재평가를 거치지 않고 전량 이관된다. 생산기관에서 참고자료와 사본 등을 미리 정리하고 활동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만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2000년대에 활동한 한시기관이 이관한 기록물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 특히 진상조사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록물 사본이나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한 전자기록물의 사본을 제본한 형태 등 중복기록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중복기록물을 이관 전 정리하여 중복본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관리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제동원위원회의 기록물은 여러 관리주체로 나뉘지면서 진상조사 기록물 컬렉션의 균형이 깨졌다. 강제동원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수집한 명부, 사진, 박물관 등 원본기록물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소속 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 진상조사를 위해 활용하던 피해진상시스템은 검색기능만 유용한 채 과거사업무지원단으로, 피해조사철, 행정기록, 구술기록을 포함한 시청각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다. 그 결과 강제동원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체상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2020년부터 4년간의 걸쳐 국내외에서 수집한 강제동원 명부 DB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명부는 국가기록원 소장 명부와 강제동원위원회 활동시 수집한 명부, 기타 다른 경로로 수집한 명부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수집한 강제동원 명부를 DB화하여 관리·활용하였다. 강제동원위원회의 명부DB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국가기록원의 강제동원 명부 DB 사업의 공수는 낮아졌을 것이고 결과물의 수준은 한층 높아졌을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한시기관 담당 부서인 경제기록과는 활동 중인 기관에 대해 수시 업무협약의 기록관리 및 이관과 관련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대상 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한 후, 기관의 특성에 맞는 실무적 내용을 교육하거나, 그 외 추가 지원요청 사항 및 애로사항 등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컨설팅·업무협약의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관을 실시한다.¹¹⁾ 한시기관의 생산기록물을 누락 없이 이관받고, 불필요한 참고자료는 제외하는 일은 업무협약의 과정에서 꼭 수행해야 할 절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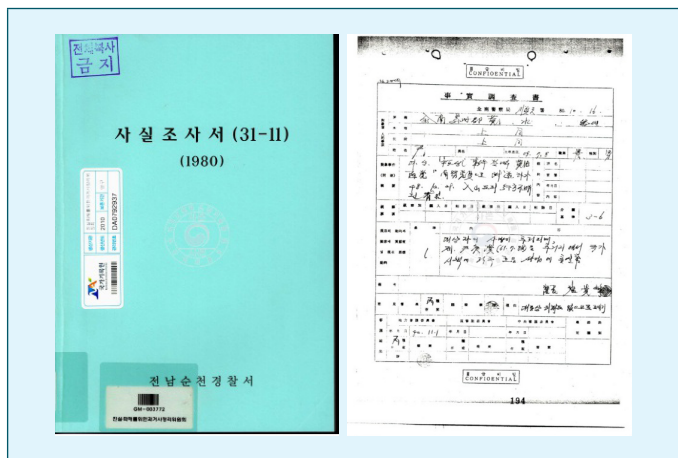
이관 받은 기록물을 어떻게 등록하느냐에 따라 차후 기록물 검색에 영향을 미친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법원 문서송부촉탁과 이해당자사를 통한 기록물 사본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사건조사기록 중에서 ‘○○○가 진술한 진술청취보고서’처럼 특정 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진실화해위원회의 편철 방식 그대로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 : 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이하 ‘캠스’)에

11) 국가기록원, 『2022년 국가기록백서』, 2023, p. 153

등록되어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건 제목에 ‘진술청취보고서’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진술청취보고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술청취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철 전체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한다.¹²⁾ 게다가 대부분의 진상조사 건이 1명의 신청인의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 다수의 신청건을 병합하여 조사한 경우가 많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의미한 식별정보였던 진상조사 사건번호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후 유용한 검색 정보로 쓰이지 못한다.

군의원사위원회 조사기록은 의문사 대상자 개별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의원사위원회 조사기록을 검색할 때 의문사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검색되도록 등록되지 않았다. 군의원사위원회 기록물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철명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명과 진상조사 번호를 조합하여야 한다. 반면 강제동원위원회 조사기록은 다양한 구성자료에도 불구하고 1철 1권으로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인명 정보에 신청인과 피해자명, 생년월일, 본적지가 식별정보로 포함되어 있어 동명이인에 대한 구분도 가능하다. 또한 내용요약에 심의번호, 심의회차, 강제동원 유형, 지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 동일인 확인 또는 통계 등에 유의미한 활용정보가 된다.

생산기관에서 이관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지 않지만, 한시기관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수집하여 이관한 사본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4>는 경찰서에서 생산한 사실조사서로 한국전쟁 이후 대공 특이점이 있는 대상자를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록한 것으로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의 주요한 단서가 된다.



<그림 4> 1기 진실화해위원회 수집 기록물 사례(경찰 기록물)

12) 권미현, 「기록정보 열람서비스 과정에서의 기록관리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 36, 국가기록원, 2022, p. 15 참고.

이 기록물은 캠프에 기록물철 제목(사실조사서(31-11), 1980), 생산연도(2010년), 생산기관(진실화해위원회)의 정보로 1철 1건으로 등록되어 있다. 원본 기록물의 생산연도와 생산기관이 ‘1980년’, ‘전남 순천경찰서’이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해당 기록물을 수집한 연도와 진실화해위원회가 생산연도와 생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스캔 파일 또는 실물을 확인하지 않는 한 해당 기록물의 원래 생산연도와 생산기관 정보를 알지 못한다. 이는 생산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기록물을 이관할 때 기록물 정보를 이렇게 기재했기 때문이다.¹³⁾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유형의 기록물을 사본이미지 파일과 기록물에 있는 정보를 매칭하는 DB 작업을 수행하여 활용하였다. 이후 해당 기록물을 사본 출력물 또는 파일로 DVD에 담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수집자료에 대한 DB구축 결과물을 해당 기록물 사본과 연계된 정보로 이관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이 불가능하다. DB구축 결과물도 CD/DVD에 담겨서 이관하여 국가기록원에서는 시청각기록물로 분류하여 등록하였다.

기록물 매체의 구분은 기록물이 생산되는 절차나 방법(전자기록물) 또는 기록이 생산되는 매체를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시청각기록물은 매체의 유형과 상관없이 영상이나 음성으로 저장·재생되는 기록물로 사진·필름류, 녹음·동영상류로 구분된다.¹⁴⁾ 그런데 기록물 사본 파일이나 기록물 정보를 정리한 DB 파일을 편의에 따라 CD/DVD에 수록하였을 뿐인데, 최종 기록물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시청각기록물로 분류하고 있다. 문서 작성 및 저장 방식의 하나인 엑셀 파일이 CD/DVD라는 매체에 담겨 있다고 시청각기록물로 분류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기록물에 비해 식별이 어렵고 특수유형으로 분류되어 기록물 정리, 등록 작업에서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¹⁵⁾ 한시기관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열람 요구가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여야 한다. 진분류까지 불가능하다면 기록물 사본 파일과 DB구축 파일을 함께 등록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룬 삼청교육 피해사건의 경우 해당 위원회가 수집·정리한 삼청교육대상자 명단(엑셀)을 이관하였고 당시 담당 조사관에 의해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미정리 서고에서 찾아내어 열람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해당 명단에는 위원회가 정리한 최종 명단뿐만 아니라, 1989년 보상신청자 명단, 법무부 보호감호자 명단, 순화 근로봉사감호, 청송감호자 명단,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등재 명단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3) 권미현, 앞의 글, 2022, p. 16 참고.

14) 국가기록원, <특수유형 기록물관리-제2부 시청각기록물>(NAK 22:2009), pp. 2~3 참고.

15) 권미현, 앞의 글, 2022, pp. 22~23. 참고.

한시기관은 진상조사를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기록물을 수집하게 된다. 사건기록과 함께 편철되어 있는 수집자료 중 간혹 ‘대외비’, ‘비밀 Ⅲ급’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보안업무규정」 제23조 3항 4호에 따르면 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 번호를 매겨야 한다. 그러나 기록물 사본 어디에도 사본 번호가 있거나 비밀이 해제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엄격히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나 어디에도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열람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록물의 내용을 직접 보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사안으로 생산·수집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기록물 보존기간 재평가와 기술(description)

한시기관의 기록물은 보존기간에 상관없이 전량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이는 특수 목적을 가진 기관의 활동 과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 컬렉션(collection)¹⁶⁾ 수집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시기관의 규모, 활동기간, 업무영역에 따라 생산기록물은 수백 권에서 수만 권에 이른다. 이 가운데 활동을 증거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기록도 있지만, 일상적인 행정문서도 다수를 차지한다. 어쩌면 불필요한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시기관 담당부서에는 매년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해 보존기간 재평가를 실시한다. 한시기관별 또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기간 여부를 재평가한다기보다는 전체 한시기관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이 재평가의 대상이 된다. 한시기관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평가를 일반기록물과 같이 기록물철 단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다.

한시기관은 특수한 목적에 따라 설립되어 그 목적을 수행한 후 폐지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한다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기록물밖에 없다. 현행 방식대로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철을 폐기하고, 30년 이상 기록물만 보존한다고 했을 때 해당 기관의 활동 전체상을 파악하는데 기록물 결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록물철 단위 평가보다 컬렉션 평가가 유용하다. 과거사 관련 한시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열람 빈도가 낮은 국제경기대회 관련 기관은 전체 기록물을 두고 활동 과정을 증거할 수 있는 주요 기록만 선별할 수 있다. 그 결과물은 유사한 다른 기관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는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 관리·활용하여야 한다. 조사기록은 보존기간이 영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16) 개인이나 조직, 기록물관리기관이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한 공통적 특성을 갖는 인위적인 기록의 집합물 ;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 기술규칙>(NAK 13:2022(v.2.1), p.2 참고.

없지만 일반 행정문서 중 민간 채용관련 기록은 지속적인 요청이 있다. 한시기관 기록물 중 이용 빈도가 높은 기록물 유형을 선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시기관 활동 시기에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기록물 사본, 단행본과 같은 참고자료, 전자기록물 출력물 등은 선별하여 폐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시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유형의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 또는 기록물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기록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기록물 기술은 이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며, 기록물의 구조, 맥락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된 형식에 따라 기록하는 행위이다. 기술의 대상이 되는 기록물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기록물군이나 컬렉션, 기록물계열, 기록물철, 기록물건이 될 수 있다.

한시기관 담당부서는 2008~2021년에 걸쳐 ‘세계화추진위원회’등 37개 한시기관의 기록물 64,897권에 대한 정리·기술을 완료하였다. 2022년에는 진실화해위원회 기록물 14,340철에 대해 정리·기술을 하였다. 대상 기록물을 12개 계열로 분류하여 계열 기술서와 군 기술서를 작성했다. 12개의 계열은 행정지원, 위원회 운영·회의, 항일독립운동사, 해외동포사, 민간인집단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 의문사사건, 해외위령사업, 위원회보고서, 학술회의·토론회 등이다.¹⁷⁾ 진실화해위원회가 다루는 큰 사건의 영역이 계열로 구분된 것은 기록물의 활용 측면에서 유의미하나 각 계열에 포함된 사건 영역 내에서도 구분되는 분야가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은 계열 수준에서의 기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용 빈도가 높은 한시기관의 경우에는 서브 계열이나 철단위까지 기술할 필요가 있다. 계열 수준의 기술은 생산부서 등 출처정보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진실화해위원회 기록물을 기술할 때 해당 위원회의 종합보고서는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위원회 활동 결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고서를 분석하면 업무절차, 진상조사 분야 등 다양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 조사를 생존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은 구술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구술자료는 피해자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발간의 기초자료가 되기도 했다. 구술기록은 영상, 음성, 녹취문, 상세목록, 사진 등의 파일이 담긴 DVD와 원본DV테이프로 구성되어 있다. 구술기록은 구술을 증언한 피해 생존자와 강제동원 피해 조사철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이관 후 개별 등록되어 각각의 기록물의 연관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다. 철단위 기술이 가능하다면 피해신고서철, 원본DV테이프, 구술기록 DVD를 연계하여 검색에 용이함을 줄 수 있겠다.

17) 국가기록원, 2021년 국가기록백서, p.156 참고

캠스에서 확인된 기술 정보를 토대로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기술계층 검색을 한 결과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일반 이용자가 기술 검색을 통해 기록물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보다시피 진실화해위원회의 군 기술은 행정총괄에 분류되어 있는데, 진실화해위원회 업무 활동을 안내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성격의 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군 단위 계층정보가 필요하다.

기본정보

관리번호	DA0789470	기록물형태	일반문서류
전자기록물여부	비전자기록물	생산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물질제목 (기록물원명)	합평11사단사건(1)		
기록물기타제목			

생산정보

관리정보

기술분류 정보

민간인집단희생사건(AG136/S21)

대통령명

행정종류	일반행정	외교	통일국방	경제일반·재정
산업·교통	공공질서·사회복지	과학기술	교육·문화·관광	지식·정보

① 계)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누리집〉

☑ 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계) 행정지원 계) 위원회보고서 계) 민간인집단희생사건 Ⓞ 계) 항일독립운동사 계) 인권형애·조작사건 계) 위원회운영·회의	하위 계층이 없습니다 상위 계층을 선택해 주세요
보기	보기	보기

〈그림 5〉 CAMS 및 누리집 기술정보 검색 화면

3. 기록물 공개재분류

열람서비스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매년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 5년주기, 공개값 미분류 또는 오분류 기록물을 공개재분류 대상으로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장기록물 중 한 번이라도 공개값에 대한 재분류 이력이 있다면, 캄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서비스 대상 기록물은 재분류 결과를 신뢰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도 있지만, 공개값이 공개일 경우에도 제공 전 신중하게 내용을 점검한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에 따른 목적 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의 제공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중 제한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적극적인 공개로 전환하는 순기능도 있다.¹⁸⁾

한시기관의 기록물은 진상조사 관련으로 대부분 개인식별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공개재분류의 원칙적 측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분류를 한다면 해당 기록물은 대부분 비공개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한시기관 기록물의 열람 목적은 재심, 소송 등 개인의 권리구제가 목적이다. 열람 요구의 방식도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위임받은 변호사를 통한 청구, 본인 청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개인의 권리구제 등 대의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재판에 활용되는 기록물은 원고, 피고와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는 되도록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한시기관 기록물의 공개재분류는 사건기록이라는 유형별 공개값을 일괄로 책정하되 단서 조항을 둘 필요가 있겠다. 현재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열람’만 가능하고 사본 등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기록물 내용을 활용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일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제공하여, 기록물을 관리·보존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시기관 활동 기간 중 많은 예산, 시간, 인력을 들여 조사한 진상조사기록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장되는 것은 기록관리원칙에 어긋난다. 한시기관에서 생산한 진상조사기록은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공문서이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이슈를 대변하는 역사자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열람서비스 과정에서 나타난 한시기관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국가기록원은 한시기관 발족 초기부터 전문요원 배치를 권고하거나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록관리 수준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시기관 업무 활동과 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록물의 등록은 열람서비스를 위한 검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진상조사와 관련된 한시기관 기록물은 사건번호, 사건명, 인명 등이 검색 정보로 관리되어 검색에 용이해야 한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기록물과 이를 정리한 DB는 이관 후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연계 정보로 등록·관리하여 한다. 검색을 돕는 수단인 기록물

18) 권미현, 앞의 글, 2021, p. 25

기술은 계열까지만 수행되고 있어 검색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사건기록 간 연계 정보가 관리되도록 기록물철 단위까지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한시기관 기록물은 국가폭력, 사회적 참사, 의문사 등 주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물로 대부분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능하다. 기록물의 적극 공개를 통해 한시기관의 설립 목적인 진상조사, 진실규명, 피해보상을 조속히 해결하고 희생자 추도, 역사교육 등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할 때이다.

■ 참고문헌

〈법령 및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보안업무규정

〈국가 및 공공표준〉

〈KS X ISO 15489-1 : 2020 문헌정보-기록관리-제1부:개념과 원칙〉, 2002
국가기록원, 〈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v2.0)〉(NAK 15:2021(v2.0))
국가기록원, 〈특수유형 기록물관리-제2부 사청각기록물〉(NAK 22:2009)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 기술규칙〉(NAK 13:2022(v.2.1))

〈단행본〉

국가기록원, 『국가기록백서』, 2012 ~ 2022년
Mary Jo Pugh 저, 설문원 역, 『기록정보서비스』, 진리탐구, 2004

〈학술 및 학위논문〉

권미현, 「기록정보 열람서비스 과정에서의 기록관리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 36, 국가기록원, 2022
강철호, 『한시 조사기관 조사기록의 관리체계 연구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김민경, 윤은하, 오효정,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법령 및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기록관리학회지』 제19권 제4호, 한국기록관리학회, 2019
황광석, 『한시 조사기관의 기록관리 방안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조소윤, 『한시기관 이관 기록물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우지원,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배나경,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 개선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임희연,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 제17호, 한국기록학회, 2008
김정희, 『과거사 규명을 위한 조사기록 관리방안 연구-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최관식, 「업무기능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6권 제2호, 한국기록관리학회, 2006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과 의미

- 세계기록유산 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

이소정 선임전문관 (sjlee@unescoicdh.org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교육홍보팀)

목 차

I. 들어가는 글

II.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대중적 이해의 필요성

III. 세계기록유산 콘텐츠 개발

1. 온라인 콘텐츠
2. 오프라인 콘텐츠

IV. 맺는 글

『기록관리 이슈페이퍼』는 기록관리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열린 논의를 위해 다양한 제언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록된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기록이라는 것은 남기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때 비로소 그 기록의 중요성과 가치가 빛을 발한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 기록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높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희소성이 있는 기록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의 사물에 불과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세계기록유산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대중들에게 알려 기록유산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남기는 기록이 개인의 기억을 넘어 세계의 기억이 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센터에서는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알리고자 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서 개발하고 있는 콘텐츠의 주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일반대중. 둘째, 기록유산 관련 기관의 종사자이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 콘텐츠의 목적 또한 달라진다. 일반대중에게는 세계기록유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기록유산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존·보호·활용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온라인 콘텐츠와 오프라인 콘텐츠로 분류하여 다뤄보았다.

온라인 콘텐츠에는 웨비나, 컬러링북, 유튜브 영상콘텐츠 및 숏폼 애니메이션을 진행한 바 있다.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대중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과 아이템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금년 센터 개관을 계기로 보다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바 전시 및 게임잼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하여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시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대중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의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센터가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세계기록유산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에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대중에게 어필하는 방법과 매체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화법을 찾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센터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숙제일 것이다.

I. 들어가는 글

오늘날 우리는 많은 기록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인식하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삶의 많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남겨진 흔적들은 기록이라는 형태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 기록은 과거에 대한 흔적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우리에게 깨달음과 영감을 주기도 하고 미래의 누군가를 위한 실마리일 수도 있다.

과거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자산을 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기록의 형태로 남겨진 유산을 ‘기록유산(Documentary Heritage)’으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간극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공유해야 할 기록유산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인류의 소중한 기억과 순간이 담긴 세계기록유산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환경적 요인으로, 그 기록을 담고 있는 재질적 특성으로, 혹은 우리의 무지와 부주의로 인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록이 사라진다는 물리적 소실에서 벗어나 인류의 소중한 기억이 사라져버린다는 의미이기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전 세계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지키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이를 향유하기 위하여 1992년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1995년 위험에 처한 기록유산의 목록화 작업을 시작으로 1997년 첫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시작되었다. “세계기록유산”은 원어로는 ‘Memory of the World’, ‘세계의 기억’이라는 뜻이다. 이는 기록 속에 담긴 인류의 집단적 “기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록이 담고 있는 전 세계 인류의 기억을 보호하고 보존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용어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분쟁 및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한 지역에 있는 전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둘째, 기록유산의 보편적 접근을 확보하여 많은 사람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측에 전문기관의 설립을 제안하게 되었고, 2019년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설립협정에 따라 2020년 7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기록이라는 것은 남기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때 비로소 그 기록의 중요성과 가치가 빛을 발한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 기록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높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희소성이 있는 기록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의 사물에 불과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세계기록유산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대중들에게 알려 기록유산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남기는 기록이 개인의 기억을 넘어 세계의 기억이 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 가운데 세계기록유산의 대중적 인식 향상을 위해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II.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대중적 이해의 필요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기억은 무엇일까. 엄마의 손을 잡고 걷던 골목, 아빠가 꺾어주던 손톱,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던 동네 친구의 모습 등. 우리의 기억은 때로는 단편적이기도 하지만, 많은 순간과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누군가의 기억을 담고 있는 기록들도 그러하다. 그 기록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기록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기록들이 담겨 있는 곳.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 또한 결국에는 개인이 담아낸 이야기들이다. 개인의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든 역사적 사명감이었든 아니면 아주 사적인 이유에서건 간에 그 시작의 원인과 모습은 다양하다. 그렇기에 세계기록유산 또한 그 기록을 만들어낸 개인의 생각과 그 사람이 살아가던 시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결국에는 그 기록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가 그 기록이 개인에서 머물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공유해야 할 자산일지 결정되는 것이다.

제아무리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남긴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우리에게 울림과 깨달음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기록유산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에 담긴 내용이 제아무리 심오하고 고차원적인 이야기라도 할지라도 현재의 우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관심하다면 기록유산이라고 불린다면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결국 세계기록유산이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중요한 의미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찾지 않는 기록유산은 그저 과거에 대한 ‘흔적’일 뿐이다.

이 과정과 관련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현대의 시간으로 해석하여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다. 기록유산에 대하여 어떠한 현대적 화법을 활용하여 대중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어떠한 형태로 구현하여야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법으로 현재 센터에서는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서 개발하고 있는 콘텐츠의 주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일반대중. 둘째, 기록유산 관련 기관의 종사자이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 콘텐츠의 목적 또한 달라진다. 일반대중에게는 세계기록유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기록유산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존·보호·활용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운데 현재 센터에서 개발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에 대하여 온라인 콘텐츠와 오프라인 콘텐츠로 나눠 좀 더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III. 세계기록유산 콘텐츠 개발

1.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센터가 설립된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이슈가 있었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자제하기를 촉구하고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때였던 만큼 많은 국가, 많은 기관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을 온라인환경으로 옮겨 진행해오던 시점이었다.

갓 설립된 기관이었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역시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온라인을 통하여 세계기록유산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웨비나, 컬러링북, 스틱 애니메이션 그리고 유튜브 영상콘텐츠이다.

1) 웨비나

2021년 11월 처음으로 시작한 기록유산 웨비나는 국내외 기록유산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센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연을 제공하였다. 웹(Web) 상에서 진행되는 세미나(Seminar)인 만큼 프랑스, 세네갈, 마카오 등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 첫 회인 만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 세계기록유산 지역위원회, 콘텐츠 활용, 잠재유산 등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전반사항에 대해 다루었다.

이듬해 진행된 「제2회 ICDH(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기록유산 웨비나」에서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기준 중 하나인 ‘세계적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각 지역별 세계기록유산을 선정하여 해당 기록물의 어떠한 세계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등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본 회차의 웨비나에서는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연사를 초청하였는데, 이를 통해 센터의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 전달과 더불어 해당 사업의 당위성과 센터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금년에 진행된 웨비나에서는 세계기록유산의 내용에 대해서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세계기록유산 전반적 내용과 특징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 회차부터는 개별 기록유산의 내용에 집중하여 이를 상세히 다뤄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록의 주체인 사람에 집중하여,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주제를 설정하였다.

〈표 1〉 ICDH 기록유산 웨비나 주제

연도	주제	주요 연사
2021	기록유산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다양성 창조	마카오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 호주영상음향보관소 등
2022	기록유산의 의미와 세계적 중요성	유네스코 아비장사무소, 이베로아카이브 등
2023	세계기록유산으로 보는 인권사(人權史)	넬슨 만델라 재단, 오슬랜드 전쟁박물관 등

인권관련 기록유산의 소장기관 및 관련 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해당 기록물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그 시대적 배경과 현재에 미치는 영향까지 아우르는 내용을 제공하면서 세계기록유산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 강조할 수 있었다.

지난 11월 센터 개관을 맞이하여 진행한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제1회 ICDH MoW

(Memory of the World, 세계기록유산)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된 바 있다. 센터 설립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인원을 현장으로 초청하여 치러진 행사였는데,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방식으로 개최되면서 다양한 연사와 많은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참여를 통해 보다 풍성한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었던 만큼, 향후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강연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2) 컬러링북

“세계기록유산을 보다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단 한문장에서 시작된 세계기록유산 컬러링북 사업인 〈컬러로 채우는 세계기록유산 (원제 : Memory of the World filled with Colors)〉은 그동안 교육적 측면만을 강조했던 콘텐츠에서 나아가 확장성 있는 아이টে็ม으로 평가되는 사례이다. 컬러링북 개발은 놀이적 성격을 가미함으로써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콘텐츠와 달리 청소년까지도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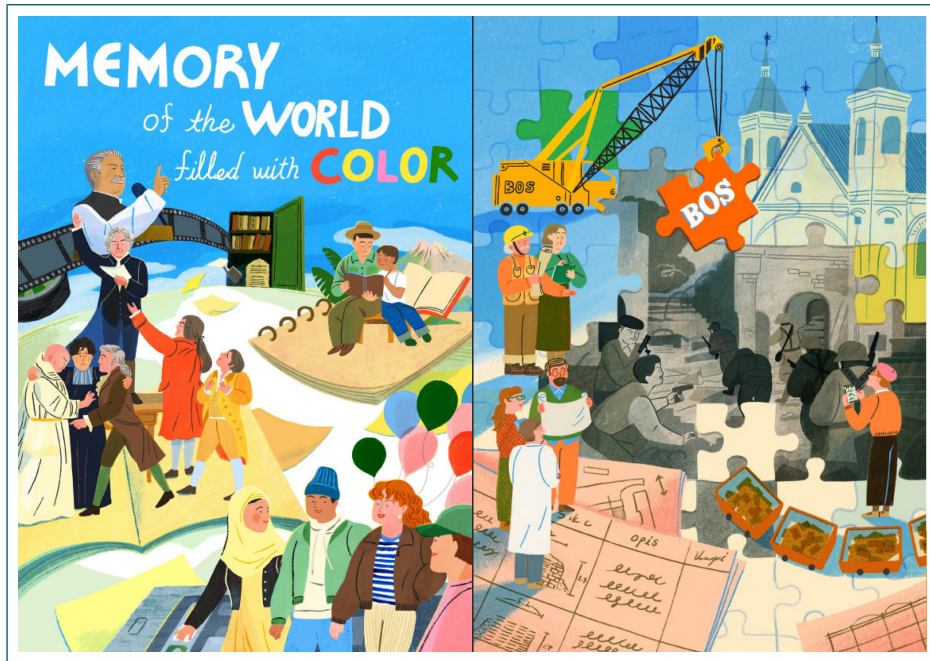
본 컬러링북은 총 9가지의 세계기록유산을 다루고 있으며, 세계기록유산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대표할 수 있는 삽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유엔 지속가능 개발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SDG)와 연계하여 해당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을 가진 세계기록유산을 선정하였고, 소장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그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전문 삽화 작가를 섭외하여 일러스트를 제작하였다.

〈표 2〉 컬러링북 참여기관 및 세계기록유산 목록

연번	대상 세계기록유산	협력기관
1	새마을운동 기록물	새마을운동중앙회(대한민국)
2	종교와 신체에 관련하여 인간에게 이로운 것들	사바마-디(말리)
3	니카라과 문맹퇴치운동 기록물	니카라과중앙아메리카역사연구소 (니카라과)
4	퀸즐랜드노동당의 대국민 선언서(1892년 9월 9일)	퀸즐랜드주립도서관(호주)
5	컬먼 티허니의 1926년 ‘라디오스코프’ 특허 출원 컬렉션	헝가리국가기록원(헝가리)
6	3월 7일에 발표된 방가반드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의 역사적인 연설	해방전쟁박물관(방글라데시)
7	바르샤바 재건 사무소 기록물	바르샤바기록소(폴란드)

연번	대상 세계기록유산	협력기관
8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 원본(1789, 1791)	프랑스국가기록원(프랑스)
9	보로부두르 사원 보존에 관한 기록물	보로부두르보존사무소(인도네시아)

한정된 수량으로 인쇄본을 제작하여 유네스코 본부, 지역사무소 및 참여 소장기관에 배포하여 센터의 활동성과를 공유하였으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개인이나 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참여 소장기관이었던 방글라데시의 해방전쟁박물관(Liberation War Museum)은 자국 내 활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추가인쇄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림 1〉 컬러링북 표지 및 삽화

3) 유튜브 영상콘텐츠

오늘날, 텍스트에서 나아가 영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많은 기관들이 자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대중으로 대상으로 기관의 성격과 추구하는 방향을 제대로 반영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이 경우, 안타깝게도 많은 시청자에게 노출되기 어려워 제작에 투입된 노력에 비하여 그 결과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설립 초기 단계였던 센터 역시도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다.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대중적 인식도 높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공자나 관련 종사자가 아니면 이에 대한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찾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보다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튜브 플랫폼에서 자체 채널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전문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진행하였다. 세계기록유산의 내용과 연계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섭외하고 함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였으며,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의 구독자층을 활용하여 보다 폭넓은 대중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신비한 세계기록유산 사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본 프로젝트는 과학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을 섭외하였고, 과학 관련 세계기록유산 등재물 가운데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아이템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세계기록유산의 내용, 시대적 배경 및 현대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망하였다.

〈표 3〉 유튜브 콘텐츠 제작 목록

연번	대상 세계기록유산
1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걸작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폴란드)
2	랜드셋 프로그램 기록[다중분석 주사기] (미국)
3	세계보건기구의 천연두 퇴치 프로그램에 관한 기록물 (국제기구)

이 중 2022년에 제작한 ‘랜드셋 프로그램 기록물[다중분석 주사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집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세계기록유산이며, 누구나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점을 조망함으로써 세계기록유산의 활용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본 콘텐츠에서는 극지연구소 소장이 전문패널로 참여하여, 환경과학적 측면에서 이 세계기록유산인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기록유산이 과거에만 머물러있는 것이 아닌 생물(生物)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를 시작으로 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크리에이터를 발굴하여 함께 협업함으로써 개별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장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청각적 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도 확보함으로써 콘텐츠의 질도 높이고자 하고 있다.

4) 숏폼 애니메이션

소셜미디어가 인기를 끌고 많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면서 짧은 시간 내에 이용자의 관심을 끌지 않으면 다른 콘텐츠로 넘겨버리는 시대가 되었다. 영상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더니 ‘쇼츠(Shorts)’가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인기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서는 1분이 넘어가는 영상은 별도 페이지를 이동하여야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았을 정도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센터 또한 ‘숏폼(Short-form)’의 형태를 차용하여 1~2분 길이로 짧은 형태로 제작하되 다양한 연령층과 언어권을 커버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으로 기획하였다.

본 콘텐츠의 가장 큰 강점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하고 제작하였다는 점이다. 문화콘텐츠제작 전문학교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직접 스토리를 구성하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함으로써 각 학생이 직업인으로서의 창작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의 관심사와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콘텐츠는 <세계기록유산에서 영감받기(Let's get inspired by MoW!)>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는데, 세계기록유산의 내용을 그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록유산에 담긴 스토리를 차용하되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스토리를 창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가고 주변 인물과의 협력을 통해 난관으로 헤쳐나가는 인물로 그려졌으며,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연계한 스토리를 개발하였다. 또한 주인공을 설정하는 데 있어 성별, 나이, 인종 등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표 4〉 숏폼 애니메이션 제작 목록

연번	대상 세계기록유산
1	어린이와 가정의 이야기(그림동화) (독일)
2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사 제작, 빅터 플레밍 감독의 「오즈의 마법사」(1939) (미국)
3	판지 이야기 필사본 (공동등재)

특히 세계기록유산의 내용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였다는 측면에서 세계기록유산에 담긴 이야기에 대한 활용적 측면을 보여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사료(史料)를 모티브로 하여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가 제작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향후 세계기록유산의 스토리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2. 오프라인 콘텐츠

1) 전시

지난 11월 1일 센터가 개관하면서, 자체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 건물의 일부 공간은 대중에게 개방하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센터와 세계기록유산에 대해 보다 다채롭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재 센터 2층 전시실에서는 세계기록유산을 활용한 특별전시회가 운영 중에 있다.

11월 2일 개관하여 2024년 6월 28일까지 운영되는 본 특별전시회는 <세계기록유산, 인류의 빛이 되다(Into the Light: Memory of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빛을 콘셉트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의 시대로 대변되는 현재의 흐름을 반영하여 기록유산이 가지고 있는 높은 진입장벽을 ‘빛’,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밝게 보일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구현함으로써 관람객이 보다 이를 쉽게 다가가고 스스로 해석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였다.

본 전시의 중요한 요소는 ‘빛’이다. 이 빛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요소이며, 과거의 기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기록유산이 남긴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세계기록유산, 인류의 빛이 되다>는 과거의 기억이 기록으로 남아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기록이 전해져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 기록이 있음으로써 기억은 과거에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빛과 깨달음을 향해 걸음을 내딛고자 한 인간의 노력처럼 본 전시에서 관람객은 빛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그 빛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인류사에서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준 순간을 담은 세계기록유산을 알게 되고, 과거의 기록들이 현재의 우리에게 어떠한 영감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전시의 끝에서 관람객은 각자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우리의 기록이 미래를 밝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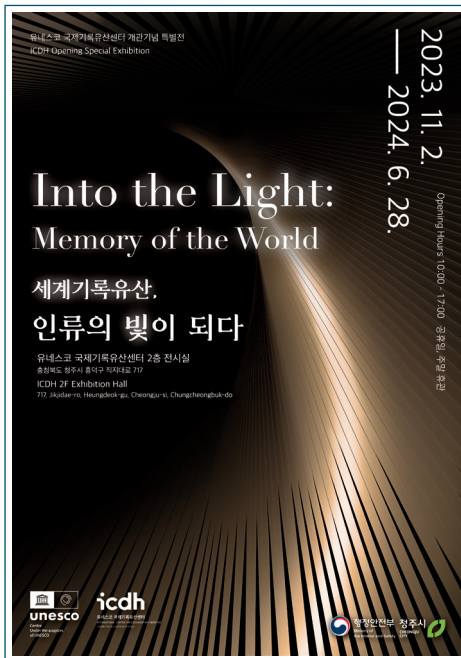
빛이 될 수 있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번 전시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전달이나 교육적 목적보다는 하나의 콘텐츠로서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콘텐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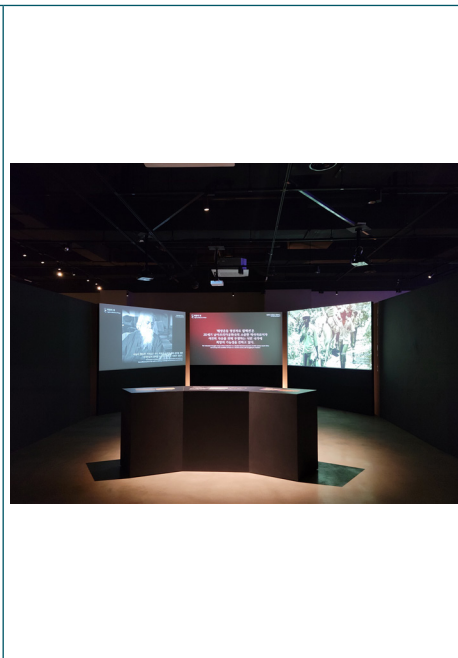
실제 세계기록유산은 각 소장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고, 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이미지, 영상 위주였기 때문에 이를 다채롭고 흥미롭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영상과 음향을 위주로 한 콘텐츠와 세계기록유산을 활용한 작품이 필요하였다. 이에 세계기록유산의 실제 이미지를 비롯한 관련 이미지 및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세계기록유산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들의 상상력이 더해져 작품들이 완성될 수 있어 새로운 세계기록유산의 활용 방향성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특히 2030세대를 주축으로 전시, 공연 등 문화생활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시’는 세계기록유산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대중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보여진다.

금번 전시에서는 세계기록유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흐름이었다면 이후에는 개별 세계기록유산에 중점을 두어 그 내용과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굴하여 더 폭넓은 층을 아우를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사진 1〉 전시포스터



〈사진 2〉 Zone 4 전경

2) 게임잼

센터에서는 다양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세계기록유산을 접목하여 대중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2022년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산업 성장과 세계기록유산 활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2022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게임잼(Game Jam)」 사업에 참여하여 세계기록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게임잼’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즉석에서 하나의 팀을 만들고 정해진 시간에 프로토타입(Prototype) 단계의 게임을 만들어 시연하는 행사를 뜻한다. 본 청소년 게임잼의 경우에는 게임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모여 현업 게임개발자들과 함께하는 실무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청소년 게임잼’에서는 매년 게임의 주제를 설정하는데, 참가자들이 이에 맞춰 게임을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세계기록유산’을 주제로 인류의 보물인 세계기록유산을 외계인으로부터 지킨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게임잼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세계기록유산 관련자료 및 강연을 제공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동의보감’, ‘훈민정음 해례본’ 등 대한민국의 세계기록유산뿐 아니라 ‘로알 아문센의 남극 탐험 필름 컬렉션(1910~1912)’, ‘니콜라 테슬라 기록물’ 등 다양한 세계기록유산을 활용한 게임을 개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31일에 개최되었던 「제1회 ICDH MoW 컨퍼런스」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성준 게임본부장이 “기록유산을 활용한 게임개발 사례”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세계기록유산을 활용한 게임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향후 기능성 게임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적 발전 가능성에 대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IV. 맺는 글

기록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점토, 잎사귀, 뼈, 나무 등에 남기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나아가 자신의 메시지를 보다 자세하고 사실적이며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기록은, 정지한 순간이 아닌 움직이고 살아있는 기억을 담고 있다.

과거로부터 전해진 인류의 기억은 기록의 형태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었고, 우리의 기억은 또 기록으로 남아 미래에 전해질 것이다.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기록의 방법과 형태는 시간이 변하면서 달라지고 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했던 열망은 한 가지일 것이다.

센터가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고려하는 부분도 이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모두 기록을 만들어내는 주체(主體)임과 동시에 기록을 받아들이는 객체(客體)이기도 하다. 우리의 기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울림과 영감을 줄 수 있고, 우리 역시 누군가의 기록을 통해 깨달음과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세계기록유산이란 결국 누군가가 남긴 기록이고, 그 기록을 통해 현재의 우리가 어떤 점을 받아들이고 보완해나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센터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하다.

현재 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시회의 마지막 공간의 주제는 “미래의 빛”이다. 그 공간은 다른 공간에 비해 비어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이기도 하고,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이 남기는 메시지로 가득 채워질 공간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의 기억과 기록으로 채워질 공간이며, 우리가 만들어갈 공간이라는 의미인 셈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 또한 그들에겐 미래였던 우리의 현재를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이다.

세계기록유산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의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센터가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세계기록유산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에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대중에게 어필하는 방법과 매체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화법을 찾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센터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숙제일 것이다.

세계기록유산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이다.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의 방법으로 풀어내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들여보는 것. 그것이 인류의 기억에 담긴 큰 자산이자 계속해서 세계기록유산이 이어질 수 있는 길이다.

■ 참고문헌

UNESCO, "Memory of the World", <https://webarchive.unesco.org/web/20220315131131/https://en.unesco.org/programme/mow>, Accessed on Nov 24, 2023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발간 목록 ||

발간호	제 목	작성자	발간일
vol. 1	기관 심층인터뷰를 통한 BRM 단위과제 운영 개선 방안 수립	황정원 기록연구사	2019. 10. 8.
vol. 2	『공공기록물법』 상의 기록의 개념 검토 ① 기록의 개념과 성립조건 - 정보와 증거로서의 기록의 함의를 기록물법에 적용하기 - ② 기록이란 무엇인가? -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관리 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점마 서기관 임신영 기록연구사	2019. 10. 22.
vol. 3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 방안	윤정훈 행정사무관	2019. 10. 31.
vol. 4	“도전! 기록관리 명감사되기”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 도입	김명옥 사서사무관	2019. 11. 15.
vol. 5	국가기록원 블록체인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의 의미와 전망	왕호성 기록연구사	2019. 11. 22.
vol. 6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의 방향	이지영 공업연구사	2019. 12. 5.
vol. 7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체계 모델 재설계	김현숙 공업연구사	2019. 12. 12.
vol. 8	건축아카이브의 해외 동향 및 향후 과제 - ICAA BRAGA 2019 참관기 -	김수연 전문임기제 허인영 전문임기제	2019. 12. 13.
vol. 9	전자기록 장기보존패키지 모델 시험과 새로운 모델 제안	신동혁 공업연구사 김상국 전산사무관 나미선 학예연구관	2019. 12. 17.
vol. 10	기록물 매체수목 해외 동향 및 향후 과제	박지혜 공업연구관	2019. 12. 24.
vol. 11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결과(2018년 생산분)	김현애 기록연구사	2020. 1. 15.
vol. 12	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한 생산현황 통보 자동화 방안	하정하 기록연구관	2020. 1. 29.
vol. 1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제도 현황과 전망 - 교육원 과정을 중심으로 -	성주영 기록연구사	2020. 2. 12.
vol. 14	정기실태점검을 통해서 본 기록관리 개선방안	박지태 학예연구관 송혜현 사서사무관	2020. 2. 27.
vol. 15	공공기록물법과 전자정보법과의 관계	임신영 기록연구사	2020. 3. 11.
vol. 16	해외 공공기록 평가선별제도 관련 사례 및 시사점	조영주 사서주사	2020. 3. 20.
vol. 17	속기록 의무생산회의에 대해 묻고 답하다	박이준 학예연구관 이주현 기록연구사	2020. 4. 3.
vol. 18	기록관리 현장 지원을 위한 기관방문 컨설팅의 추진	나창호 기록연구관 정경택 공업연구사	2020. 4. 21.
vol. 19	디지털화 기록의 문자인식 - OCR 적용 사례 및 테스트 결과를 중심으로 -	박지혜 공업연구관	2020. 5. 13.
vol. 20	이용통계로 알아보는 국가기록포털의 현재	서경란 전산주사보	2020. 5. 27.
vol. 2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절차 개선	권미현 기록연구사	2020. 6. 17.
vol. 22	손상파일 유형과 복구사례로 본 전자기록의 이해	김자경 기록연구관	2020. 7. 21.
vol. 2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 데이터세트 형태의 전자기록에 대한 기록관리 실행 방안 -	이주광 공업연구관	2020. 9. 11.
vol. 24	특수지의 특성과 기록보존	허인영 전문임기제	2020. 10. 23.
vol. 25	기록물 상태검사 개선방향과 데이터 활용 사례	박지혜 공업연구관 이상화 한시임기제	2020. 11. 20.
vol. 26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개선방안	최현욱 학예연구사	2020. 12. 18.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발간 목록 ||

발간호	제 목	작성자	발간일
vol. 27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절차 수립 및 적용 사례 기록관리시스템 컨설팅 현황	황정원 기록연구사 이창영 공업연구관	2021. 2. 26.
vol. 28	대통령기록관 소장 미술품의 이해와 활용 영구기록물 분류체계 추진현황	김정은 학예연구관 김현진 기록연구사	2021. 3. 31.
vol. 29	공공기록물법령 질의답변 사례 - 전자기록물 관련을 중심으로 - 독립만세운동 기록물 복원·복제 지원 사례	김명옥 사서사무관 양소은 학예연구관, 조은혜 학예연구사	2021. 4. 30.
vol. 30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지원업무와 개선방향 민간분야 기록관리 관련 현황 및 시사점	문찬일 기록연구사 임신영 기록연구관, 이해원 기록연구사	2021. 7. 2.
vol. 31	디지털화 기록의 문자인식(OCR) 기술 적용 및 활용방안 기록관리 기관평가의 현재와 미래 디지털 사본의 원본인정을 위한 기준, 절차 및 관리방안 제안	홍정기 보건연구사 백승옥 사서사무관 김상국 전산사무관	2021. 9. 30.
vol. 32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동향 도입하고 싶은 해외기관의 기록물 보존정책	김지훈 사서주사, 최찬호 공업연구관 안규진 학예연구사, 이재영 인턴연구원	2021. 11. 30.
vol. 33	민간아카이브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의 방향성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참여형 아카이브 전시기획	이정연 학예연구사 김주연 학예연구관	2022. 3. 31.
vol. 34	국제사회에서 아카이브 간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 실효성 있는 기록관리 표준을 위한 단계적 정비 방안	임신영 기록연구관, 박민예 행정주사보 김명옥 서기관, 송현규 기록연구사	2022. 6. 30.
vol. 35	행정박물 선별·관리체계 개선방안 국가기록원 클라우드 전환 현황과 과제	박부숙 사서사무관, 박지영 사서주사보 왕호성 기록연구사	2022. 9. 30.
vol. 36	기록정보 열람서비스 과정에서의 기록관리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동체 아카이브 관련 해외 동향 및 국내 현황과 과제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이관방식 변경 및 평가	권미현 기록연구사 이정연 학예연구사 윤정훈 행정사무관	2022.12. 15.
vol. 37	국내외 기록관리 최신 동향 - 2022년 연구개발사업의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	김용일 공업연구사 이정연 학예연구사	2023. 4. 28.
vol. 38	2022년 국가기록원 국외업무출장 관련 해외 기록관리 사례	이젤마 서기관, 나미선 학예연구관 조은혜 학예연구사, 이정연 학예연구사 조이현 학예연구관, 신동혁 공업연구사 이상화 전문임기제 라급 이영락 공업연구사, 박성배 공업연구관	2023. 6. 30.
vol. 39	국내 기록관리 인공지능 기술 적용 검토	방재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주)스토리안트 대표 김용일 공업연구사	2023. 9. 27
vol. 40	열람서비스를 통해 본 한시기관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과 의미	권미현 기록연구사 이소정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교육홍보팀 선임전문관	2023. 12. 4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는 기록관리 현장의 다양한 현안 논의와 기록인 여러분의 귀중한 연구성과 공유를 기다립니다. 기고를 원하시거나, 본지의 발간과 관련한 일체의 질의 혹은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혹은 이슈페이퍼 내용에 대한 질의 등 필자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뒷면의 문의처나 필자의 메일을 통해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